

주요개념 : 지각된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애착, 자아개념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가 부모-자녀 애착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문 영 숙* · 박 인 숙**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동시에 매우 복잡한 심리 사회적 관계로, 이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상호작용은 자아개념의 형성 및 앞으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처음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이다. 건전한 성격과 형성은 건전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역할과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며, 특히 아동은 부모와의 접촉에 의해서 그들의 성격이 형성되고 그 후의 성인 생활에 까지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Bowlby(1973)에 의하면 인간은 최초의 맥락 내에서 자아 및 양육자에 대한 작동 모델을 받당시

키며 이것이 미래의 관계형성 및 관계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초기 경험의 중요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 중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자녀 관계가 친밀하고 온정적이면 부모는 심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필요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Maccoby, 1980). Roberts(1988)는 문제아들이 흔히 자녀를 거부, 등한시 하는 가정에서 출현한다고 했다.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우울, 자살, 섭생 이상과 같은 정신 사회적 병리에 대한 비특이적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부적절한 하절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Klimidis, Minas와 Ata(1992)는 강박관념, 충동, 그리고 반추의 경향을 가진 호주 청소년 631명을 연구한 결과 강박관념과 반추 정도가 심할수록 낮은 부모의 돌봄과 높은 과보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Flaherty와 Richman(1986)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와 최근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기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교신처자 문영숙 : moon0113@empal.com

에 부모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지와 성인기의 사회적 지지수준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과보호적 양육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가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Siegelman, 1965), Barnett(1980)등에 의한 주장에서와 같이 자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특성과 사회화 방식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방식, 성장시 환경, 성장시 외상적 경험, 성별 등으로(강윤희, 1982), 이중에서도 비행과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의 확립에 중요시된다. 이에 관해 Coopersmith (1968)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보다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아개념, 특히 자아존중감 (self-esteem)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Erikson(1985)은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에 부모와의 동일시가 기초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자아존중과 관련된다는(Grusec & Rechler, 1980)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양육 방식이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나타낸다. 스스로의 자아를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한 자아개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며, 이러한 비현실적인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면, 대인관계 면에서 비현실적인 방식의 행동양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다르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은 자기 생활습관, 태도, 대

인관계 등 모든 면에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아동기의 발달요인들이 생애 발달적(Life course development) 측면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사회적 적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오랫동안 지지되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기의 사회인지 발달 요소들은 성인기의 정신 병리적 양상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상호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기의 무수히 많은 발달적 요소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행동과 태도는 특히 사회적 조직망이 제한된 아동기에 가장 주된 영향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Parker & Gladstone,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속하는 여대생들이 아동기에 지각했던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과거에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현재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 현재 부모-자녀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 현재 부모-자녀 애착,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과거 부모-자녀관계

16세 이전의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회고하는 부모-자녀관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로 부모의 돌봄(care)차원과 과잉보호(overprotection) 차원을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차원, 신뢰감 차원, 소외감 차원 정도를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3) 자아개념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감정적 태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1969)의 자아개념 검사 중에서 개인의 자기 존중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의 느낌, 자기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반영하는 성격적 자아를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논산시와 대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애착정도,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간호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survey research)이다.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논산시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004년 3월 15일에서 3월 26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실시절차는 연구자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3. 연구도구

1) 과거 부모-자녀 관계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은, Parker(1979)등이 개발하고 Carson(1987)에 의해 개정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바탕으로 송지영(1992)이 개발한 한국판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16세 이전의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보고하는 회고형 2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돌봄(care)과 과잉보호(overprotection)의 두차원으로 나뉜다. '돌봄' 차원은 돌봄 내 무관심/거부적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며, '과잉보호' 차원은 통제/과잉보호 대 독립성,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안그랬다'에서 '이주 그랬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돌봄 차원이 .81, 과보호 차원이 .81이었다.

2)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년기 대상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IPPA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부모님이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 시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10 개의 문항들이다. 둘째는 신뢰감(Trust)으로 걱정 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시며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이며, 셋째로 소외감 (Alienation) 요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 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의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alpha)는 의사소통이 .81, 신뢰감이 .81, 소외감이 .81이었다.

3)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정적 자아의 5요인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적 자아는 개인의 자기 존중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의 느낌, 자기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반영하며, 모두 34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형의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4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program 을 이 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 관계, 현재 부모-자녀 애착정도와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 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을

하였다.

- 2)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 현재 부모-자녀 애 착,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로 분석하였다.
- 3)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 현재 부모-자녀 애 착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분석 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부모-자녀관계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부모-자녀관 계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표 1>과 <표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 출생순위, 16세 이전의 부모와의 동거상태, 현재 부모와의 동거상태를 보았다. 과거의 부모-자녀관 계에서 일반적 특성과 돌봄에서의 관계에서는 현 재 경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현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는 과거 부모-자 녀관계에서 돌봄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하고 있음 이 나타났다.

과보호와의 관계에서는 부학력($p<.01$), 출생순위 ($p<.05$), 현재 부모와의 동거상태($p<.05$)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부학력에서는 대졸인 경우(평균 2.20), 대학원 이상인 경우(평균 2.16)가 국졸인 경우(평균 1.92) 보다 대상자들이 과거 부모-자녀관계에서 과보호 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출생순위에서는 첫째(평균 2.15)나 독자(평균 2.12)가 중간(평균 2.06), 막내(평균 2.01)보다 과보호 를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특성	구분	동분			과보호		
		M±SD	t or F	p	M±SD	t or F	p
부학력	대학원이상	3.04±0.38	0.024	0.999	2.16±0.31	4.260	0.002**
	대졸	3.05±0.37			2.20±0.44		
	고졸	3.04±0.33			2.05±0.38		
	중졸	3.05±0.38			2.08±0.36		
	국졸	3.03±0.42			1.92±0.30		
모학력	대학원이상	3.00±0.24	0.389	0.816	2.04±0.28	1.719	0.145
	대졸	3.05±0.38			2.20±0.41		
	고졸	3.06±0.35			2.09±0.39		
	중졸	3.00±0.37			2.06±0.36		
	국졸	3.05±0.39			2.02±0.39		
16세 이전 경제수준	상	3.18±0.17	2.232	0.065	1.87±0.58	0.688	0.601
	중상	3.07±0.40			2.07±0.43		
	중중	3.06±0.33			2.10±0.34		
	중하	2.93±0.41			2.10±0.45		
	하	3.03±0.41			2.12±0.31		
현재 경제수준	상	3.17±0.14	3.375	0.010*	1.97±0.69	0.160	0.959
	중상	3.11±0.36			2.11±0.51		
	중중	3.06±0.33			2.10±0.34		
	중하	2.94±0.45			2.07±0.38		
	하	2.83±0.28			2.07±0.52		
출생순위	첫째	3.02±0.34	2.453	0.063	2.15±0.38	3.116	0.026*
	중간	2.97±0.38			2.06±0.37		
	막내	3.10±0.36			2.01±0.39		
	독자	3.10±0.48			2.12±0.30		
과거부모 (16세 이전)	같이 살	3.05±0.35	1.923	0.072	2.09±0.39	-0.143	0.887
	떨어져 살	2.81±0.51			2.11±0.44		
현재부모	같이 살	3.05±0.35	0.690	0.491	2.13±0.41	2.174	0.030*
	떨어져 살	3.03±0.37			2.04±0.35		

* p<.05 ** p<.01 *** p<.001

현재 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경우(평균2.13)가 떨어져 사는 경우(평균2.04)보다 대상자는 과보호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에서 현재 경제수준(p<.05), 과거 부모와의 동거상태(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경제수준에서는 경제수준이 중간이상(평균 3.45)이 낮은 수준(평균 3.15)보다 높은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나타내었다.

과거 부모와의 동거상태에서는 같이 살았던 경우(평균 3.55)가 떨어져 살았던 경우(평균 3.38)보

다 높은 신뢰감이 있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 정도를 나타내었다.

소외감에서도 과거 부모와의 동거상태(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과거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경우(평균 2.80)가 과거에 부모와 같이 살았던 경우(평균 2.47)보다 훨씬 높은 현재 부모-자녀간의 소외감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부학력, 모학력, 16세 이전 경제수준, 현재 경제수준, 출생순위, 16세 이전의 부모와의 동거상태, 현재 부모와의 동거상태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의 차이

특성	구분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부화력	대학원이상	3.62±0.59	0.476	0.753	3.95±0.57	0.905	0.461	2.42±0.44	0.540	0.706
	대졸	3.55±0.50			3.79±0.53			2.51±0.44		
	고졸	3.51±0.52			3.80±0.55			2.48±0.45		
	중졸	3.49±0.57			3.75±0.50			2.54±0.47		
	국졸	3.54±0.67			3.81±0.59			2.54±0.52		
모화력	대학원이상	3.18±0.46	0.817	0.515	3.47±0.46	0.704	0.589	2.69±0.39	1.612	0.171
	대졸	3.56±0.57			3.86±0.60			2.53±0.48		
	고졸	3.56±0.51			3.82±0.52			2.44±0.41		
	중졸	3.48±0.53			3.78±0.53			2.54±0.48		
	국졸	3.50±0.67			3.75±0.61			2.59±0.54		
16세 이전 경제수준	상	3.64±0.42	1.059	0.376	4.06±0.53	1.528	0.193	2.59±0.69	0.932	0.445
	중상	3.62±0.57			3.84±0.55			2.54±0.44		
	중중	3.53±0.50			3.83±0.52			2.46±0.44		
	중하	3.43±0.65			3.69±0.62			2.56±0.51		
	하	3.54±0.62			3.67±0.50			2.51±0.37		
현재 경제수준	상	3.45±0.24	2.570	0.038*	4.03±0.15	1.845	0.120	2.78±0.83	1.949	0.102
	중상	3.65±0.50			3.87±0.55			2.44±0.42		
	중중	3.54±0.51			3.83±0.51			2.47±0.43		
	중하	3.45±0.69			3.71±0.66			2.60±0.55		
	하	3.15±0.45			3.49±0.35			2.66±0.34		
출생순위	첫째	3.55±0.49	1.181	0.317	3.80±0.53	0.932	0.425	2.48±0.41	0.417	0.741
	중간	3.42±0.60			3.73±0.57			2.55±0.49		
	막내	3.56±0.60			3.86±0.56			2.49±0.51		
	독자	3.62±0.27			3.77±0.46			2.50±0.47		
	과거부모 (16세 이전)	같이 살	3.55±0.55	2.788	0.006**	3.82±0.55	3.049	0.002**	2.47±0.45	-2.843
	떨어져 살	3.17±0.47			3.38±0.56			2.80±0.50		
현재부모	같이 살	3.51±0.56	-0.920	0.358	3.78±0.54	-1.324	0.186	2.52±0.46	1.643	0.101
	떨어져 살	3.56±0.53			3.85±0.55			2.44±0.44		

* p<.05 ** p<.01 *** p<.001

학력에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과보호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은경(1995), Kenny(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거 부모의 돌봄에 대한 자녀의 자각수준을 높게 보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갈수록 소자녀를 둔 가정이 증가하며, 이러한 현재의 사회현상과 더불어 자녀중심의 가족이 이

루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중심이 되다보니 부모의 과보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Jersild(1974)은 부모의 과보호적인 태도는 자녀로부터 환경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거부의 태도와 동일하다고 했다. 전성일 등(1996)의 연구에서도 우울증과 우울 행동장애 모두에서 어머니의 돌봄이 부족하고 어머니가 과보호하는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오동제(1993)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돌봄이 부족하고 어머니가 과보호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그 반대의 경우에서 자

란 아동보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 병리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자녀를 둔 현재의 가족형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인 태도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부모 교육에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경제수준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과거 부모의 돌봄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부모의 의사소통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은경(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상태가 윤택할수록 부모의 돌봄 양육을 많이 지각하고 있음은 하위 경제상태보다 상위 경제상태라는 환경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문제해결 단계에서 좀더 완화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순위에서는 첫째, 독자가 과거 부모의 과보호를 많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부모와의 동거상태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과거 부모의 과보호를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과거 부모와의 동거상태에서는 과거에 부모와 같이 살았던 자녀들이 현재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뢰감을 높게 보고하고 있으며, 과거에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자녀들은 현재 부모와의 소외감을 높이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타

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지니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와 사랑 혹은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정도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정도는 <표 3>와 같다.

(표 3)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평균정도

현재 과거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M ± SD	M ± SD	M ± SD
돌봄	상	3.91 ±0.46	4.20 ±0.41	2.25 ±0.35
	중	3.58 ±0.40	3.86 ±0.42	2.43 ±0.37
	하	3.43 ±0.50	3.39 ±0.49	2.78 ±0.47
과보호	상	3.35 ±0.53	3.53 ±0.55	2.60 ±0.48
	중	3.51 ±0.52	3.79 ±0.50	2.54 ±0.41
	하	3.74 ±0.50	4.06 ±0.45	2.31 ±0.40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 평균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하였다<표 4>.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과거 부모-자녀관계에서 돌봄을 높게 지각한 자녀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표 4)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p
의사소통	돌봄	35.094	2	17.547	85.329	0.000***
	과보호	8.939	2	4.469	16.863	0.000***
신뢰감	돌봄	38.085	2	19.042	97.623	0.000***
	과보호	17.352	2	8.676	34.763	0.000***
소외감	돌봄	16.692	2	8.346	52.518	0.000***
	과보호	7.507	2	3.753	20.452	0.000***

* p<.05 ** p<.01 *** p<.001

애착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에서 평균 3.91로 중간 정도(평균 3.58), 낮은 정도(평균 3.43)로 돌봄을 지각한 대상자보다 높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신뢰감에서도 과거 부모-자녀관계에서 돌봄을 높게 지각한 대상자가(평균 4.20), 중간정도(평균 3.86), 낮은정도(평균 3.39)로 지각한 대상자보다 높은 현재 부모-자녀간 신뢰감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소외감에서는 과거 부모-자녀관계에서 돌봄을 낮게 지각한 대상자가 평균 2.78로 중간정도(평균 2.43), 높은 정도(평균 2.25)로 지각한 대상자보다 높은 현재 부모-자녀간의 소외감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과거 부모-자녀관계에서 과보호를 높게 지각한 대상자는 평균 3.35로 중간정도(평균 3.51), 낮은 정도(평균 3.74)로 지각한 대상자보다 현재 부모-자녀간 낮은 의사소통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신뢰감에서도 과보호를 높게 지각한 대상자가 평균 3.53으로 중간정도(평균 3.79), 낮은 정도(평균 4.08)로 지각한 대상자보다 현재 부모-자녀간 낮은 신뢰감 정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소외감에서도 과보호를 높게 지각한 대상자가 평균 2.60으로 중간정도(평균 2.54), 낮은 정도(평균 2.31)로 지각한 대상자보다 현재 부모-자녀간 높은 소외감 정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과거 부모와의 관계는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각된 과거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신뢰감 수준은 높았으며, 소외감 수준은 낮았다. 반면

에 지각된 과거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신뢰감 수준은 낮았고, 소외감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은경(1995), Parker(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수용, 이해들의 돌봄 차원이 중요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R.R. Sears(1965)는 부모의 양육방법, 양육조건 등은 개인의 성격발달을 결정해 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신경증적인 환자들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부모들로부터 거부당 하였으며, 진심에서 우러난 온정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K. Horney, 1987).

Anderson도 부모의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부터 성장한 자녀들은 성숙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마음이 밝고 행동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G.R. Medinuss, 1967).

Kuczynski, Zahn-Waxler, Radke-Yarrow(1987)는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이 용이하며, 부모의 행동기준이 안정적이고 애정적이어서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고,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모델을 보임으로써 효율적인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개입이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자녀는 심각한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부모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에 자녀는 자율성이나 독립심 발달이 방해받을 수 있다(강분희, 장연집, 정정옥, 1998).

Jersild(1975)도 수용적인 방법과 거부적 양육방법에 대한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부모의 과보호적 방법은 자녀로부터 모험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거부적 방법과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신용식(1993)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기본적으로 수용적, 허용적이며 애정이 있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일때, 이들의 인성은 바람직한 특성과 결부되며, 반대로 부모의 태도가 거부적, 방임적이거나 과보호 또는 기대과잉일 때 아동의 인성은 불건전한 행동적 특성과 결부되기 쉽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어서 때로는 수용적이고 때로는 거부적 일때, 아동은 정서 불안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침(1978)은 부모가 충분히 애정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고, 자녀를 지배하고 간섭하려는 권위적이고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육방법은 문제학생이 되도록 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 부모의 돌봄 양육태도에 따른 긍정적인 부모-자녀애착과 과보호 양육태도에 따른 부정적인 부모-자녀애착을 규명할 수 있었음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볼 수 있겠다.

3.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 현재 부모-자녀애착,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지각된 부모-자녀관계, 현재 부모-자녀애착,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는 <표 5>과 같다.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 현재 부모-자

녀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돌봄 차원에서는 의사소통($r=0.631$), 신뢰감($r=0.669$), 자아개념($r=0.520$)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과보호($r=-0.369$), 소외감($r=-0.63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과보호차원에서는 소외감($r=-0.53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의사소통($r=-0.303$), 신뢰감($r=-0.396$), 자아개념($r=-0.292$)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신뢰감은 자아개념($r=0.64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소외감($r=-0.677$)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소외감은 자아개념($r=-0.477$)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지각된 과거-부모 자녀관계(돌봄, 과보호)와 현재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분석결과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는 자아개념의 28.2%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현재 부모-자녀 애착(의사소통, 성취감, 소외감)은 자아개념의 46.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표 5>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과거 부모-자녀관계		현재 부모-자녀애착		
		X ₁	X ₂	X ₃	X ₄	X ₅
X ₁	돌봄					
X ₂	과보호	-0.369***				
X ₃	의사소통	0.631***	-0.303***			
X ₄	신뢰감	0.669***	-0.396***	0.790***		
X ₅	소외감	-0.531***	0.275***	-0.534***	-0.677***	
Y	자아개념	0.520***	-0.292***	0.625***	0.641***	-0.477***

* p<.05 ** p<.01 *** p<.001

〈표 6〉 자아개념 영향요인

변인	R	R ²	Rchange	Fchange	F값
돌봄	0.520	0.270	0.270	123.741	123.741***
과보호	0.531	0.282	0.011	5.319	65.330***
의사소통	0.648	0.420	0.420	240.286	240.286***
성취감	0.676	0.457	0.037	22.854	139.478***
소외감	0.679	0.461	0.003	2.020	93.945***

* p<05 ** p<01 *** p<00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과거 부모-자녀관계가 현재 부모-자녀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남숙(1997), 이은경(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김명자(1978)와 장도현(1985)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애(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거부의 양육행동은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방식, 성장시 환경, 성장시 외상적 경험, 성별 등으로(강문희, 1982), 이 중에서도 비행과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의 확립이 중요시 된다.

이에 관해서 Coopersmith(1968)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보다는 부모의 태도가 자아개념, 특히 자기존중감(self-esteem)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에 부모와의 동일시가 기초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과 관련된다(Grusec & Rechler,

1980)는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음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과거 부모-자녀 관계(돌봄, 과보호)가 현재 부모-자녀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4년 3월 15일에서 3월 26일 까지였고 논산시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95부이었다.

연구도구는 과거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를,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문항들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은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과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 현재 부모-자녀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관계에서 부학력($p<.01$), 현재 경제수준($p<.05$), 출생순위($p<.05$), 현재 부모와의 동거여부($p<.05$), 과거 부모와의 동거여부($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와 현재 부모-자녀간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과의 관계에서는 돌봄, 과보호 차원에서 의사소통($p<.001$), 신뢰감($p<.001$), 소외감($p<.001$)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지각된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 현재 부모-자녀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돌봄 차원은 의사소통($r=0.631$), 신뢰감($r=0.669$), 자아개념($r=0.520$)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1$), 과보호($r=0.369$), 소외감($r=-0.53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과보호 차원은 의사소통($r=-0.303$), 신뢰감($r=-0.396$), 자아개념($r=-0.292$)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 소외감($r=0.27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과거 부모-자녀관계(돌봄, 과보호)가 자아개념에 갖는 설명력은 모두 28.2%, 현재 부모-자녀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자아개념에 갖는 설명력은 모두 46.1%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부모의 애정과 보호, 따뜻한 관심, 즉 돌봄이 한 개인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현재의 부모-자녀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가 한 개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은 매우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한 개인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증진 및 성장 발달에 관한 간호 중재시 상담자 및 교육자로서의 자호사의 역할 확립에 실제적인 근거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부모-자녀 관계 같은 발달적인 측면을 보다 설명력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종단 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의 지속성을 보다 명료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부모-자녀 관계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자녀의 보고와 아울러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고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자아존중감 형성에 관련된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교실환경,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문희 (1982). 자아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발달 심리학적 고찰. 학생생활연구, 2, 경기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3-14.

강문희, 장연집, 정정옥 (1998). 아동정신진장. 정민사.

고남숙 (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 자녀관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자 (1978).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4), 75-84.

나 철 (1978). 한국 고교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조사 제1편 모범학생과 문제학생의 비교. 신경정신의학, 17 (3), 45-63.

신용식 (1993). 교육심리. 서울:교육출판사.

심영현 (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법과

-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이은경 (1995).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도현 (1985). 부모양육행동이 자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원식 (1968) 가정환경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
- Armsden, G. C., & Greenbert,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nett, M. A., Howard, J. A., King, L. M., & Dino, G. A. (1980). Antecedents of empathy : Retrospective accounts of early socializ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6(3), 361-365.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Coopersmith, S. (1968). Studies in self-esteem.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 2, 218-224.
- Erickson, M. F., Strufe, L. A.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behavior problems in a preschool high-risk sample. Monogr Soc Res Child Dev, 50(1-2, serial No209), 147-166.
- Flaherty, J. A., & Richman, J. A. (1986). Effects of childhood relationship on the adult's capacity to form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851-855
- Grusec, J. E., & Recchler, E. (1980). Attribution reinforcement and altruism :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25-534.
- Horney, K. (1987).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 New York : W.W.Norton.
- Jersild, A. T. (1975). Child Psychology(7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tion on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limidis, S., Minas, I. H., & Ara, A. W. (1992). The PBI-BC : A brief current form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for adolescent research. Comprehensive psychiatry, 33, 374-377.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edinnus, G. R. (1967). Reading in the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 Paker G., & Gladstone, G. L. (1996). Parental characteristics as influences on adjustment in adulthood.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lenum.
- Roberts, M. (1988). School yard menace. Psychology Today, 22(2), 52-56.
- Sears, R. R. (1965). The Lead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 Siegelman, M. (1965). Evaluation of Vronfenbrenner's questionnaire of children concerning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6, 163-174.

ABSTRACT

Key Words :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child attachment, Self-con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Child Attachment and Self-Concept of Woman College Students

Moon, Young Sook* - Park, In Sook**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he past parent-child relationship(caring and overprotection), present parent-child attachment (communication, confidence, alienation) and self-concept of woman college students.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15 through 26, 2004.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95 students who attended universities located in N and T city. The data analyzed using with SAS program, and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Results:** Concerning the connection of demographic variables to the past parent-child relations(caring and overprotection), current parent-child attachment (communication, confidence, alienation)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conomic family standard ($p < .05$), educational level of their fathers($p < .01$), birth of order($p < .05$) and whether

or not they lived with their parents under the same roof($p < .05$), past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ir parents under the same roof($p < .01$). The relationship of the past parent-child relations (caring and overprotection), and current parent-child attachment(communication, confidence, alienation)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communication($p < .001$), confidence($p < .001$), alienation ($P < .001$). The correlation among the past parent-child relations(caring and overprotection), current parent-child attachment(communication, confidence, alienation) and self-concept, caring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p < .001$) with communication($r = 0.631$), confidence($r = 0.669$) and self-concept($r = 0.520$), and ha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p < .001$) with overprotection ($r = -0.369$), alienation($r = -0.531$). The overprotection ha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p < .001$) with communication($r = -0.303$) confidence($r = -0.369$)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self-concept($r=-0.292$), and that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p<.001$) with alienation ($r=0.275$). Overall, the past parent child relations(caring and overprotection) made a 28.2% prediction of self-concept, and the current parent-child attachment(communication, confidence and a sense of alienation) made a 46.1% prediction of self-concept, and their

predictability was all significant.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erceived the past parent-child relationship(caring and overprotection) i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present parent-child attachment(communication, confidence, alienation), self-concept. Therefore, nursing strategy is needed to manage these revealed factors.